

부모가 참선수행 하는 모습은 자식에게 잔소리 하지 않아도 되는 가장 뛰어난 가르침입니다.

- 공주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대원 스님



제845호 2011년 7월 20일 수요일 (음력 6월 20일 · 불기 2555년 · 주간)

정부 정말 바뀌었나

총선·대선 앞두고 정부·여당 화해 제스처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으로 불교계와 갈등을 빚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최근 불교계에 대해 달라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5월 전통사찰을 규제 관련 법 개선 발표에 이어, 7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전통문화재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행정인권부 발표와

조계종 실무자 달라

예산 늘려 놓고

불교계 눈총받게 해서야

이날 한나라당은 정부에 >전통문화유산 방재시스템 통합 >확대 >전통문화유산 상시관리 활동 지원 >전통문화유산 체형 및 문화관광 기반조성 지원 등 3대 분야 21개 사업에 2200억원 예산을 요구했다. 지난해 관련 예산 950억원 대비 132% 늘어난 금액이다.

이 가운데, 템플스테이 지원 예산은 123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었다. 전통사찰과 불교문화유산 관리 및 개·보수 비용에도 관련 예산 733억원이 책정되는 등 불교계는 1381억원이 지원되는 10개 사업에서 직·간접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액된 예산에는 기존의 재난방재 시스템의 확대 외에도 사찰 등 목조건축 문화재 내진 설비 등이 포함됐다. 또, 개별 문화재 단위로 이뤄졌던 방재 관리를 통합 관리로 변경하는 안도 담겼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전통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발전시키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당정협의에서 기획재정부와 전통문화예산을 획기적·전향적으로 늘리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재희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위 활동과정을 통해 전통문화 현장을 직접 가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를 포함해 예산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이삼길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조계종을 예방했다. 새주소 사업을 두고 불교계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예방에는 기획실장 정만 스님, 특보단장 정년 스님, 결사추진본부 사무처장 해일 스님, 김영일 기획실 차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조계종은 새도로명 주소 사업이 전통문화를 없애는 중차대한 일이라며 우려의 뜻을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계종과 도로명 주소사업에 대해 상호의견을 교환했다. 조계종과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해 지속적

으로 협의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영일 기획실 차장은 "예방은 행정안전부의 갑작스런 요청으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는 새주소 사업의 정당성만을 되풀이했다"며 "이 차관보의 예방은 아무 의미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처럼 한 만남을 두고도 행정안전부 발표와 조계종 측 입장이 다른 것과 같이, 불교계는 정부·여당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당장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조계종은 당정이 전통문화재 관련 예산을 증액한 것에 대해서도 사찰이나 수행공간에의 지원이 아니라 문화재에 대한 당연한 지원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예산 증액으로 불교계가 큰 이득을 보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조계종은 이를 경계하는 논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동섭 기자



긴 장마가 지나고

20일 넘게 이어진 긴 장마에 마음까지 녹해진다. 무더위도 좋다. 맑은 하늘에 뜨거운 태양, 얼음물처럼 차가운 산사의 계곡으로 떠나고 싶어진다. 7월 초 장마를 피해 나들이를 나온 가족들이 공주 마곡사 솔바람길(백범명상길) 계곡에서 평온하게 물놀이를 하고 있다. 사진=박재관 기자

연등회 올해 안 무형문화재 등록

정병국 문광부 장관 조계사 법회서 발언

"연등행사(연등회)를 올해 안에 (중요)무형문화재로 등록시키고, 내년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겠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월 12일 조계사에서 열린 한국전통사상총서 한글역 출간기념 불경법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은 문화재청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위원장 임돈희)가 연등회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보류한 것에 이은 것이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는 8일 현행 연등회의 전통성에 문제가 있다며 지정을 보류했다.

정 장관은 축사에서 불교문화에 대한 국민적 오해를 바로 잡고, 그 중요성을 바로 알리게 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병국 장관은 "불교계 특례라 오해받는 템플스테이는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하면서 부족한 숙소해결을 위해 정부가 제안해 시범 실시했던 것"이라며 "이후 외국인의 반응이 좋아 관광사업으로 지속됐던 것으로 종교적 접근에서 이뤄진 사업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혜초기념관 세운다

동국대 혜초원정대

<왕오전축국전>을 남긴 혜초 스님의 기념관이 중국 시안(西安)에 세워질 전망이다.

동국대 혜초원정대(대장 윤재웅)는 7월 6일 중국 시안 선유사(仙遊寺)를 찾아 주지 통탄(龍潭) 스님을 만나 혜초기념관 건립을 약속했다.

선유사는 혜초 스님이 3년간 밀교를 연구했던 곳이다. 혜초 스님은 선유사에서 황제의 부탁을 받고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다. 2009년에는 조계사와 선유사가 공동으로 '신라 국고승혜초기념비'를 세우기도 했지만, 지금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원정대와 동행중인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 스님은 "동국대와 불교계가 올해 안에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국대 혜초원정대는 7월 5일부터 20일간 혜초 스님의 구별기행 루트 중 중국 시안-인도 뉴델리 구간을 답사 중이다. 조동섭 기자

845호 CONTENTS

상반기 결산 사찰@ 통도사 2



벨린트 임현식 노인영화제 홍보대사 4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하반기 사업계획 6

법향을 찾아서·월호 스님 7

특집·깨달음과 열반 12~13

특집·연꽃축제 14

선지식을 찾아서·향봉 스님 16~17

타고르에 심취한 소녀 팔순에 박물관열어/김양식 원장 21

브로닌 "절 같은 남자가 이상형"

KBS '미녀들의 수다'의 스타 브로닌이 양주 육지장사(회주 지원) 템플스테이를 체험하고 자신의 이상형을 '절 같은 남자'라고 소개했다.

7월 14일 방영된 MBC '기분좋은 날(MC 이재용 흥은희)'에 출연한 브로닌은 '한국 남자'를 주제로 쓴 시를 소개했다. 어설피지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브로닌은 시에서 "남아공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아시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냥 서양 벽이 아닙니다. 한국의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랑 믿음 건강 보호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절. 제가 원하는 남자와 같습니다"라고 표현했다.

절은 벽은 힘이 있고, 안으로 들어 가면 따뜻하고 사랑스럽다. 이런 남자가 내 꿈의 남자다"라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남아공 출신인 브로닌과 영국인 예바, 미국인 비앙카, 필라딘 따루 4명이 육지장사를 방문해 스님과 다담을 나누고, 108배 하기, 발우공양, 명상, 백일장, 축담 체험 등 1박 2일 프로그램에 동참했다.

참가자들은 대종방 생활과 투박한 수련복, 새벽 기상에 대해서 어색해 하면서도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부답스럽지 않은 프로그램에 만족했다.

브로닌은 "템플스테이는 시 쓰고 명상하고, 밥 먹고 명상하고, 모

든 생활이 명상이었다. 신기하면서도 아름다워 마음이 안정되고 스트레스 없 어 지는 것 같다. 수다도 필요 없어진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함께 출연한 예바도 "짧은 시간 동안 많이 배우고 좋은 기분 받아서 좋다. 중간 중간 스님이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좋은 말씀을 해주니 좋다"며 극찬했다. 이상연 기자



자료제공=MBC

불교계, 대북 인도적 지원 어찌나

종단, 민주본 등 내부 검토·논의 중

종교계의 대북 인도적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한국종교인평화회의(이하 KCRP)가 각 종단에 대북 지원 협력을 제안했다.

KCRP 남북교류추진위원회는 7월 12일 열고 각 종단의 입장 검토 후 세부적인 사항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의 방북 지원

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힌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KC)도 이 자리에 참여했다.

남북교류추진위원회에 참석했던 조계종도 내부 검토 후 KCRP 회의에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불교계의 대북 지원 노력은 최근 마련된 각종 토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인도적 지원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기범 기자

농인향당
농인향당의 침향전문점
침향갤러리
침향복합물 · 침향염주 · 침향선향
갤러리 02-738-6777 (조계사 맞은편)
본사 02-3663-6777 www.nihwa.com

신상품 LED인등·전구
천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새로운 개념의 여성의류판매점 & 커피전문점

패션카페 전국 지사 및 대리점 모집

상표출원 : 41-2011-0020246

불자여러분! 귀의삼보하오며 상생을 넘어 공생으로서 공심으로 무주상보시를 이루는 그날까지 패션카페를 벗삼아 재로삼아 함께 웃고 헤나가실 도반을 모집합니다.

재고가 전혀 없는 옷가게 패션카페
본사에서 매주 재고는 거두어가고 새로운 디자인을 공급함으로써 대리점은 재고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커피전문점 패션카페
좋은 원두 커피와 다양한 메뉴를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에게 서비스하고 여성의류와 패션잡화 등의 판매수익으로 수익성은 많이 높아집니다.

저렴하고 실질적인 인테리어 패션카페
유행따라 인테리어를 바꾸시지 않아도 되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편안한 분위기로 설계하여 시설비에 많이 투자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www.fashion-cafe.co.kr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86-5 (3호선 남부터미널역 6번 출구)

지 사 : 점포 100m2 이상 / 대리점 : 점포 30m2 이상
전화문의 : 070-7759-0852, 02-584-0543